

| 오피니언 |

협정이 늘면, 그만큼 다자협정은 어려워진다.

도하의 실패는 퇴보가 아니고 전진의 실패인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사실 세계무역의 바다는 잠잠하다. 무역은 세계 GDP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높은 상품가와 견실한 성장은 보호주의 주장이 약화 되었음을 뜻한다. 비록 체제가 하루에 분해되지는 않겠지만 해가 지나면서 점차 녹슬게 될 것이다.

내년이면 미 의회가 대통령에 부여한 통상교섭권이 종료된다. 이로 인해 도하를 다시 살리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 내년이면 미국의 농업법 제정으로 농산물 교역관련 협상은 어려워질 것이다. 금번 확인된 악의가 경기 하강으로 구·미(歐·美)에게 제조업분야 실적이 늘어나면 더욱 확산될 것이다. 서방국가들의 지적 소유권 해적행위에 대한 불평이 개도국과의 관계에서 첨예화될 수 있다.

더 나쁜 것은 WTO의 중요기능인 무역분쟁관련 절차가 작동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실패후 다음에 WTO가 미국에 불리한 판정을 내릴 경우에 의회는 그런 결정을 젊잖게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점을 모두 합쳐보면 금번 라운드뿐 아니라 전 무역체제가 좌초될수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수 있을 것이다.

도하라운드는 2001년 9.11후 번영하고 단합된 세계가 회교 테러리스트를 제압할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번주 다시 그들이 정지시킬 힘이 없는 폭력사태에 직면하여 정치 지도자들은 세계를 더 좋게 만들려는 마음을 품었겠지만, 그들은 실패하였다.

도정소식

연구원소식

RIS소식

RHRD 소식

충남소식

인삼메카서 24일간의 생명축제, 금산 인삼엑스포 개막

— 세계 15개국 참가... 9월 22일 ~ 10월 15일까지 일반 체험행사 가득 —



‘생명의 뿌리, 인삼’을 주제로 고려인삼의 세계화의 초석을 세울 ‘2006 금산 세계인삼엑스포’가 인삼 종주지인 금산군 금산을 신대리에서 4년여의 긴 준비기간을 거쳐 그 화려한 막을 올렸다.

9월 21일 열린 개막식에선 박홍수 농림부장관, 이완구 충남지사, 김문규 충남도의회 의장, 박동철 금산군수 등 각계 인사와 인삼 생산 농가, 인삼가공 유통업체 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엑스포 개막을 축하하고 성공을 기원했다.

개막식에 앞서 일렉써니 그룹의 ‘전자바이올린’ 공연과 ‘생명의 뿌리 인삼 주제영상’ 상영, 성악가 임웅균씨의 공연, 인삼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는 타고(打鼓) 및 강처사 설화 무용 등 종합예술공연이 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보식 인삼엑스포 조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2002년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무려 4년 동안의 준비가 모두 끝나 이제 관람객을 맞게 됐다”며 “인삼엑스포가 2002년 열린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이상의 성공을 거둬 세계적인 축제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환영사에서 “이번 엑스포가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담보하는 자리가 될 것을 믿는다”며 “무한한 생명의 꿈을 꾸고,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이 넘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으며, 또한 “고려인삼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인삼의 남북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남한을 대표하는 금산 인삼과 북한을 대표하는 개성 인삼을 연계 발전시켜 한반도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월 22일 개장과 함께 관람객들을 맞는 인삼엑스포는 10월 15일까지 신대리 일대 10만8900㎡(3만3000평)에서 세계 15개국, 80개 단체가 참가하며, 주제관 등 6개 전시관에서 인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 눈에 보고,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인삼의 효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웰빙축제’다.

충남도 극적인 6번째 외자유치 성공으로 외자유치 물 올랐다

— 타 자치단체 경쟁과 무리한 자원 요구 등 어려움 속에 협상력의 승리 —
— 세계적인 반도체장비 전문기업 ASM와 2000만달러 투자 MOU 체결 —

충청남도가 극적으로 민선 4기 6번째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9월 7일 오후 10시(한국시간) 이완구 충남지사와 아서델 프라도 ASM 사장은 천안벨리내에 2000만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MOU(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번 MOU에 따라 반도체장비 전문기업인 ASM은 향후 수 년내 (주)충남테크노파크가 소유한 660평 규모의 천안벨리내 공장시설에 최첨단 반도체 장비 R&D센터와 생산라인을 건설하게 된다.

이날 MOU는 치밀하고 집요한 협상력의 승리였다. 그동안 ASM은 충남도에 투자 의향을 강하게 밝혀왔으나 뒤늦게 타 자치단체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면서 이날 오전까지 투자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게다가 ASM은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10억원 규모의 클린룸 설치를 투자 조건으로 제시, 충남도를 난감하게 만들었다.

승부수를 띄운 쪽은 충남도였다. 이완구 지사는 프라도 사장과의 단독 협상에 나서 클린룸을 설치해 줄 수 없으며 이번 협상이 결렬되면 다른 기업이 입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결국 한국 내 투자의 전략적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프라도 사장은 경쟁관계의 타 자치단체를 제치고 인프라 등이 우수한 충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완구 지사도 입주 공장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10년간 임대료 보조, 전기·수도·가스 등의 차질 없는 공급과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ASM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6개국에 생산라인을 두고 있는 반도체장비 전문기업으로 지난해 8억 6000만달러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지난 1996년 대전에 ASM코리아(주)를 설립하고 국내 벤처회사인 지니텍(주)을 인수하기도 했다.

이로써 충남도는 이번 유럽 5개국 순방에선 2건의 외자유치를 달성하는 개가를 올렸다. 민선 4기 이후 외자유치 금액도 13억3400만달러로 늘게 됐다. 이완구 지사는 “이번 유럽 순방은 투자유치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체득하는 값진 경험이었다”며 “자치단체장이 직접 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도 얻었다”고 말했다.

안면도 ‘초대형 테마파크’ 조성

서해안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안면도 꽃지 해수욕장 일대가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변신한다. 대림산업 오션캠퍼스 컨소시엄은 안면읍 꽃지 해수욕장 일대 총 115만4000평의 국공유지를 매입해 한국, 중국, 일본 등의 휴양수요를 빨아들일 수 있는 대규모 글로벌 리조트를 조성한다.

총 1조2000억 ~ 1조3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이 사업은 ‘바다와 꽃, 예술이 어우러지는 해양 리조트’를 표방하고 있다. 사업이 본격화에 오르면 전세계 스파를 체험할 수 있는 스파센터, 세계음식문화 테마파크, 선(仙)마을 등 독특한 휴양시설이 조성되고 연중 문화예술 행사가 끊이지 않는 글로벌 해양 문화 허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림산업의 해양관광리조트 프로젝트 이외에도 건설업체들의 다양한 레저 프로젝트가 날개를 달았다. 주5일 근무로 여가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다 서해안 고속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레저개발 사업이 유망분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안면도 ~보령 연륙교 건설로 주목받는 안면도 개발 : 안면도 개발 프로젝트는 최근 안면도~보령간 연륙교 건설 프로젝트 추진 이후 더욱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충남도는 안면도 ~ 보령 간 14km의 연륙교를 올해 안에 착공해 2012년까지 완공할 방침이다.

충남도, 민선4기 시책구상 보고회 가져

—강한 충남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 제시—



충청남도는 9월 15일 도 대회의실에서 전 간부공무원과 시군 기획감사실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의 실현을 위한 민선 4기 도정운영 시책구상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민선4기 균형있는 지역발전분야 등 도정 5대 정책목표별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되었다. 먼저, 균형있는 지역발전 분야에서는 낙후지역인 금강권 발전을 위하여 공주, 논산,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을 연결하는 광역복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금산에 전국 이통장연합회 다목적 연수회관을 건립하며, 연기 특목시 및 당진시 승격 등을 제시했다.

또한 행정도시, 아산신도시, 도청이전지 등 도내 3개 건축프로젝트를 연결하는 1000만명이 찾는 건축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둘째, 함께 하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약 740만명의 재외동포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릴 수 있는 한민족 정신문화 허브를 조성하고, 백제역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2010백제문화전을 부여, 공주를 중심으로 개최하며, 지역문화자원의 관광화 및 보존관리를 위하여 백제문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지역 종교자원의 명품화를 추진하자는 제안도 제시됐다.

셋째, 활력있는 농어촌 건설을 위하여 농·학·관협력 농촌관광마을을 시군별 1개마을 16개소를 조성하여 농어촌 소득증대를 도모

하며 농수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제식품 박람회 참가, 포장디자인 개발비 등을 지원하고 농수산물 수출탑 시상제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역동적인 산업경제 발전을 위하여 백제의 전통예술과 고유의 맛을 홍보할 수 있는 백제의 집을 건립하고, 지역 첨단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천안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문화콘텐츠 창작전문가 아카데미 운영, 지역문화연구센터 설립 등 문화산업의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과 조화되는 자연순환형 축산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깨끗한 목장을 2010년까지 200개소, 약취탈취장치 지원 232개소, 가축분뇨처리시설 930개소를 지원하며, 환경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및 협력강화를 위하여 충남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립한다.

아울러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생태환경을 조성하고자 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운영, 지역통합생태 네트워크 구축, 천수만·금강 생태공원도 조성해 나간다. 또한, 환경용량을 고려한 유역관리를 위하여 금강·삼교호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추진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도는 이번에 구상 보고된(안)을 토대로 관계전문가로부터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자문 받아 민선4기에 펼쳐 나갈 시책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발전연구원 임시 이사회 가져

- 8월 18일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이사 22명 참석 -
- 이사장 선임 및 청사이전을 위한 기금 사용안건 의결 -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8월 18일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이완구 도지사를 비롯한 연구원 이사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이사회를 가졌다.

이번 이사회는 그동안 공석이던 이사장 선임과 청사이전을 위한 기금사용에 대한 의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이완구 도지사를 이사장에 선임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 농업기술원 청사가 대전 서남부권 개발로 철거됨에 따라 공무원교육원 부지에 신축중인 새청사로 이전할 때까지 임시청사로 사용할 대전광역시 용두동 소재 동아일보 빌딩 건물 임차비 11억원을 기금에서 집행하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 하였다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된 이완구 도지사는 “충남발전연구원이 명실상부한 정책산실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청사 이전

충남발전연구원은 9월 26 ~ 29일 까지 4일동안 연구원 청사를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동서네거리 동아일보 빌딩 5-6층으로 이전하였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 농업기술원 청사가 대전 서남부권 개발로 철거됨에 따라 충남 공주 소재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내에 신축중인 새청사로 이전할 때까지 임시로 이전하였다.

충남발전연구원 청사 이전 안내



주소 : 대전시 중구 용두동 112-1 동아일보 빌딩(5-6층) 충남발전연구원
교통편

- 지하철 : 오룡역
- 좌석버스 : 102, 104번
- 일반버스 : 110, 140, 170, 180, 212, 860번

충남도, 지역경제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가져

— 9월 20일 태안에서 전국 경제담당공무원 등 300여명 참석 —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9월 20일부터 이틀간 충청남도과 행정자치부의 후원으로 태안 안면도 오션캐슬에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지역경제 담당공무원과 시·도 발전 연구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제11회 지역경제 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전국 지역경제 담당 공무원과 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경제혁신 마인드를 높이고 다른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상호 벤치마킹하는 자리로 지난 1996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는 KDI 현정택 원장의 기초강연과 스웨덴 고텐버그 대학 박상철 교수의 특강을 비롯하여 시도연구원의 연구과제 발표 등 거시적 차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발표와 각 시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지역경제혁신 사례발표로 구성되어 열띤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혁신사례로 발표된 13개 지역사례 중 5개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최우수 사례인 경상북도의 「지역경제 Win-Win을 위한 대구·경북 경제통합」에는 국무총리 상이, 우수사례인 대구·강원·경남·대전 사례에는 행자부 장관상이 수여되었다.

이날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최민호 행정부지사가 대신한 축사를 통하여 “이번 행사가 공무원들의 경제 마인드에 대한 의식과 행태를 새롭게 바꾸는 혁신의 장이 되길 바라며, 경험과 정보의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제 활성화에도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재정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4대전략산업을 통한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향토자원 개발 육성 등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찾아 도정에 반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지역혁신대회 개최



제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지역예선대회인 충남 지역혁신대회가 8월 30일 당진 신성대학 산학협력관에서 김용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국장, 김용웅 충남지역혁신협의회 의장, 이병하 신성대학장, 민종기 당진군수를 비롯한 광역 및 기초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대학 산학협력단 관계자, 도와 시·군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역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혁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개최된 이날 행사는 김용문 균형위 지역혁신국장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비전과 성과’에 대한 특강에 이어 지난 7월 17일부터 1개월간 도내 전역에서 공모접수한 지자체, 대학, RIS, 연구지원기관, 중소기업 등 총 5개분야 24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와 평가단의 평가가 있었다.

유구자카드직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포럼활동 사업 등 12건은 분야별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충남도지사, 충남 지역혁신협의회회장으로 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2006 충남RHRD 중점사업」 워크숍 개최



한서대학교에서 지난 8월 18일부터 3일간 충남의 전략산업중 하나인 영상미디어 산업과 관련한 인적자원개발의 일환으로 애니메이션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과 함께 프로젝트 사업을 마무리하는 상영회를 실시하였다. 1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2006 충남RHRD 중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12개 인적자원개발사업중 하나로서 충남의 영상미디어 전략산업분야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일컬어지는 문화지식 사업이 21세기의 커다란 조류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가운데 영상사업의 중요성은 하루가 다르게 강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은 90년대에 들어와 이러한 영상사업의 첨병 역할을 해오며 양적으로 팽창해오고 있다.

하지만 양적팽창에 비해 상대적으로 질적 향상은 더디어져 왔으며 필름 제작방식에서 디지털 제작방식에서 전환되는 과정에서 더욱더 두드러졌다. 이러한 특징은 여러 가지 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지만 그동안 산재되어온 애니메이션 관련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교육부재가 크게 지적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 3위 제작국이라는 명성에 비해 그 인지도는 크게 떨어지는 문화산업부분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는 전문 교원을 통해 애니메이션의 제작과정 있어서 필요한 기술과 제작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습득하고 나아가 애니메이션 제작 워크숍을 통해 직접 고품질의 애니메이션 작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그 동안 필름 방식 애니메이션에서 표현되어온 기법 애니메이션의 디지털 제작방식 전환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다년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애니메이션 제작기술을 개발, 작품에 적용시키고자 ‘애니메이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이번 사업은 3,000억원 규모의 국내시장에서 활발히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200여 개의 업체에서 곧바로 실무에 적용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과정과 연계할 경우 보다 폭 넓은 애니메이션 교육과정과 연계함으로써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실질적 교과과정으로 기대된다.